

정책연구 2007-03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

허찬국 · 김필현 · 김창배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

1판1쇄 인쇄/2007년 3월 23일

1판1쇄 발행/2007년 3월 2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노성태

편집인 · 노성태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 //www.keri.org/](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21

값 4,000원

목 차

<요 약>	7
I. 문제제기	13
II. 임금과 관련한 경총과 노동계의 논란	14
III. 제조업 임금의 국제비교	16
1. 절대적 임금수준과 상대적 임금수준	16
2. 노동생산성: ‘노동의 기여’ 그리고 ‘자본의 기여’	20
3.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이라 인정할 경우, 임금 비교	27
4. 제조업 임금 구성에 대한 국제비교	30
IV. 제조업 임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33
참고문헌	35
<부록> 노동장비율과 노동소득/자본소득 비율과의 관계	6
<부표>	4

표 목 차

<표 1> 국가별 시간당 임금과 순위(2005년 기준)	16
<표 2> 주요국 시간당 임금(달러환산)의 추이	17
<표 3> 1인당 GNI를 감안한 상대적 임금수준(제조업, 2005년) 비교	18
<표 4> 1인당 GNI 1~2만 달러 시기의 임금상승률 비교	19
<표 5> 노동장비율을 감안한 소득분배와 실제 소득분배 비교	3
<표 6> 한·미·일의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제조업)	25
<표 7>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2
<표 8> 전산업 비정규직 비중 추이	6
<표 9> 제조업 시간당 임금에서 직접임금(Direct Pay)이 차지하는 비중	22
<표 A1> 한국·일본·미국의 제조업 피용자보수	3
<표 A2> 한국·일본의 노동장비율과 노동/자본 소득비중	4
<표 A3> 노동장비율을 감안한 소득분배와 실제 소득분배의 추세 비교	2
<부표 1> 국가별 시간당 임금과 순위(2005년 기준, PPP 적용)	43
<부표 2>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관련지표	4
<부표 3> 제조업 시간당 임금에서 사회보험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	4

그림목차

<그림 1> 한·미·일의 노동소득분배율(제조업)	24
<그림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	6
<그림 3>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 비교	8
<그림 4> 제조업 부문별 노동생산성, 명목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6

<요 약>

1.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의 평가

(1)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대적 임금수준 높다.

미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은 2005년 현재 시간당 13.6달러로 주요 31개국 중 21위

- 과거 우리보다 임금이 높았던 싱가포르·대만·홍콩 등에 비해서 약 2~2.5배 높은 수준

소득수준과 대비해 본 상대적 임금수준은 훨씬 높음.

- 전체 비교대상 31개국 중 5위
-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158.4
 - 경쟁국인 대만(76.9), 싱가포르(51.5), 홍콩(37.8)에 비해서는 2~4배 수준

(2) 2000년 이후 제조업 임금 '노동의 기여' 증가를 초과해 상승

노조 측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시간당 산출량으로 계산되는 '노동생산성'을 기초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증가율이 '노동의 기여' 증가를 초과하고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 노동 이외에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의 기여가 과소평가되기 때문

실제 노동/자본 소득비율 증가율을 자본의 기여를 감안하여 추정된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과 비교한 결과,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으로 귀속된 부분이 적정수준 이상이었습니다.

- 2000~2005년간 노동장비율의 변화를 감안한 적정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은 거의 0%인 반면 2000~2005년간 노동/자본 소득비율은 연평균 4.2% 증가

□ 이는 ‘노동의 기여’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러 생산요소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당 산출량’ 증가를 임금상승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임을 말함.

(3) 노동생산성을 ‘노동의 기여’라 보더라도 임금상승률은 높다.

□ 노조의 주장대로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상승이 지나침.

□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임금비용으로 정의됨. 따라서 생산성 증가 한도 내에서 임금이 상승한다면 단위노동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하락해야 함.

□ 하지만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2000년 이후 5년간 2.5% 증가

- 5년간 2.5% 증가는 그다지 큰 수치는 아니지만 대만(-21%), 일본(-13%), 미국(-5%), 독일(-6%) 등 경쟁국 및 주요 선진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한 것과는 큰 대조

2. 시사점

□ ‘시간당 산출량 증가’를 노동의 기여증가로 해석해 임금인상과 직결하는 것은 잘못

- 최근 경쟁력 하락을 감안할 때,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상승이 필요
 - 특히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지출금, 법정복리비 및 노동관련세금 등의 증가속도를 하향 안정시킬 필요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

- I. 문제 제기
- II. 임금과 관련한 경총과 노동계의 논란
- III. 제조업 임금의 국제비교
- IV. 제조업 임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I. 문제제기

□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지속되고 있음.

- 경총 등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상승률로 인해 심각한 경쟁력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
- 반면 노동계는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은 노동생산성¹⁾의 높은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
 - 재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임금수준은 낮지만 국민소득 등을 감안한 상대적 임금수준은 높다고 반박
 - 또한 소위 ‘노동생산성’은 전체 산출물을 취업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이를 전부 노동의 기여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 이런 상반된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임금수준을 단순(절대) 비교하느냐 아니면 상대적 비교를 하느냐와 ‘노동생산성’ 정의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올바른 임금비교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함.

- 1인당소득,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한 상대적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기여’의 차이
- 노동생산성을 ‘노동의 기여’라 인정할 경우, 임금인상률의 국제비교

1) ‘시간당(또는 일인당)산출량’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이 보고서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II. 임금과 관련한 경총과 노동계의 논란

- 경총 등 재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상승률로 인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

<경총, '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 2007. 2.>

-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1997년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05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192.1로, 8년간 92.1% 상승한 반면, 일본은 101.7로 거의 상승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영국은 각각 22.9%, 37.3% 상승에 그쳤고, 경쟁국인 대만 역시 17.6% 상승에 그쳤음.

-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의 임금상승세 지속

- 1987년 이후 2006년까지 1987, 1995, 1998년 등 3개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국민경제생산성²⁾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이루어져 국내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

- 반면 노동계는 높은 임금증가율은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

2)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말함.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산출되며 통상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사용

<민노총,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2006. 4.>

□ 노동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시간당 임금만 세계 최고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

- 1979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평균은 8.8%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계의 주장은 부가가치 증가의 상당부분이 자본기여의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

<경총, '96년 임금조정 기본방향'>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노력과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경영혁신 등 총체적인 요소의 결합에 의한 것임. (중략) 그러므로 첨단기술시대에서 부가가치 증가의 상당부분은 자본기여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하며…… (후략)”

Ⅲ. 제조업 임금의 국제비교

1. 절대적 임금수준과 상대적 임금수준

□ 미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³⁾은 시간당 원화기준 13,881 원, 달러기준 13.6달러로 비교대상 31국(지역) 중 21위

<표 1> 국가별 시간당 임금과 순위(2005년 기준)⁴⁾

	자국통화 기준	달러 기준	순위		자국통화 기준	달러 기준	순위
노르웨이	252.1	39.1	1	일본	2395.0	21.8	17
덴마크	212.6	35.5	2	이탈리아	16.9	21.1	18
독일	26.5	33.0	3	스페인	14.3	17.8	19
핀란드	25.7	31.9	4	뉴질랜드	21.2	15.0	20
네덜란드	25.6	31.8	5	한국	13881	13.6	21
벨기에	24.7	30.8	6	이스라엘	55.8	12.4	22
스위스	38.0	30.5	7	싱가포르	12.7	7.7	23
오스트리아	23.6	29.4	8	포르투갈	5.9	7.3	24
스웨덴	214.6	28.7	9	대만	205.0	6.4	25
룩셈부르크	22.2	27.7	10	체코	146.4	6.1	26
영국	14.1	25.7	11	헝가리	1212.0	6.1	27
호주	32.7	24.9	12	홍콩	43.9	5.6	28
프랑스	19.8	24.6	13	폴란드	14.7	4.5	29
캐나다	28.9	23.8	14	브라질	10.0	4.1	30
미국	23.7	23.7	15	멕시코	28.6	2.6	31
아일랜드	18.3	22.8	16				

자료: 미 노동통계국

3) 보수비용(compensation costs)을 의미하며, 보수비용에는 ①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직접적인 보수(direct pay) ②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지출금, 법정복리비 및 노동관련 세금 등(employer social insurance expenditure and other taxes)이 포함. 이에는 모집비·훈련비·후생복지시설(예: 식당, 의료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4) 구매력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 순위는 한국이 비교대상 29개국 중 19위(<부표 1> 참조)

□ 제조업 임금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에 따라 임금수준의 높고 낮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즉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달러환산 기준)은 미국(23.65달러), 영국(25.66달러), 일본(21.76달러) 등과 비교해 보면 약 2분의 1 수준에 그침.
- 하지만 과거 우리보다 임금이 높았던 싱가포르(7.66달러), 대만(6.38달러), 홍콩(5.65달러) 등과 비교해 보면 약 2~2.5배 수준
 - 제조업 임금순위는 1975년 싱가포르·홍콩·대만·한국 순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한국이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되는 추세

<표 2> 주요국 시간당 임금(달러환산)의 추이

(단위: 달러)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미 국	6.16	9.63	12.71	14.81	17.17	19.65	23.65
영 국	3.35	7.52	6.22	12.61	13.79	16.84	25.66
일 본	2.97	5.46	6.27	12.59	23.47	21.93	21.76
싱가포르	0.83	1.53	2.52	3.74	7.57	7.18	7.66
대 만	0.38	1.03	1.51	3.91	5.99	6.19	6.38
홍 콩	0.75	1.50	1.73	3.22	4.80	5.45	5.65
한 국	0.32	0.95	1.23	3.70	7.28	8.23	13.56

자료: 미 노동통계국

□ 따라서 임금의 수준과 증가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 또는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상대적 국제비교가 필요

<표 3> 1인당 GNI를 감안한 상대적 임금수준(제조업, 2005년) 비교

	(A)시간당 임금 달러기준 미국=100	(B)1인당 GNI 달러기준 미국=100	상대적임금 =(A)/(B) 미국=100	상대적임금 순위
브라질	17.3	7.9	218.9	1
독일	139.5	79.1	176.5	2
네덜란드	134.5	83.7	160.6	3
벨기에	130.2	81.6	159.6	4
한국	57.3	36.2	158.4	5
핀란드	135.0	85.6	157.6	6
오스트리아	124.4	84.5	147.1	7
호주	105.3	73.7	143.0	8
덴마크	149.9	108.3	138.4	9
캐나다	100.7	74.5	135.1	10
프랑스	104.1	79.6	130.8	11
스페인	75.2	58.0	129.7	12
이탈리아	89.0	68.6	129.7	13
스웨덴	121.5	93.9	129.4	14
영국	108.5	86.0	126.2	15
이스라엘	52.5	42.6	123.4	16
노르웨이	165.5	136.2	121.5	17
폴란드	19.2	16.3	118.0	18
헝가리	25.7	22.9	112.0	19
뉴질랜드	63.3	59.4	106.6	20
체코	25.8	24.5	105.5	21
아일랜드	96.2	91.8	104.8	22
일본	92.0	89.1	103.2	23
스위스	129.0	125.6	102.7	24
미국	100.0	100.0	100.0	25
포르투갈	31.0	37.0	83.9	26
룩셈부르크	117.0	150.0	78.0	27
대만	27.0	35.1	76.9	28
멕시코	11.1	16.7	66.6	29
싱가포르	32.4	62.8	51.5	30
홍콩	23.9	63.3	37.8	31

주: 대만은 1인당 GDP

자료: 미 노동통계국,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1) 1인당 GNI에 비해 제조업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소득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임금수준, 즉 시간당 임금을 1인당 GNI로 나눈 지수⁵⁾를 보면, 우리나라는 158.4로 비교대상 31국(지역) 중 5위
 - 이는 선진국인 미국(100.0), 영국(126.8), 일본(103.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경쟁국인 대만(76.9), 싱가포르(51.5), 홍콩(37.8)에 비해서는 단순비교 때보다 격차가 더욱 확대

<표 4> 1인당 GNI 1~2만 달러 시기의 임금상승률 비교

국가명	1인당 GNI 1~2만 달러 기간	제조업 시간당 임금 증가율(%) ¹⁾	순위
프랑스	1979~1990	9.7	1
노르웨이	1978~1987	9.7	2
덴마크	1978~1988	9.0	3
스웨덴	1976~1988	9.0	4
한국 ²⁾	1995~2005	8.0	5
미국	1978~1987	6.7	6
이태리	1987~1996	6.3	7
호주	1979~1996	6.0	8
벨기에	1979~1992	6.0	9
캐나다	1979~1998	5.3	10
독일	1986~1990	5.3	11
영국	1987~1996	5.2	12
네덜란드	1979~1992	4.4	13
일본	1980~1988	3.8	14

주: 1) 자국통화 기준

2) 2005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NI는 \$15,830

자료: 미 노동통계국,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5) 2005년 미국의 시간당 임금과 미국의 1인당 GNI를 기준(=100)으로 한 지수

(2) 우리와 같은 발전단계였을 때 선진국의 임금상승률은?

- 우리나라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었던 선진국들의 당시 임금상승률을 살펴봄으로써 현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의 적정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임금증가율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었던 비교대상 14개국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들의 1인당 GNI가 1~2만 달러였던 기간은 미국(1978~1987년), 독일(1986~1990년), 일본(1980~1988년), 호주(1979~1996년) 등이었음.
 - 이 기간 중 임금상승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8.0%로 미국(6.7%), 영국(5.2%) 등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특히 일본(3.8%)에 비해서는 2배 수준

2. 노동생산성: ‘노동의 기여’ 그리고 ‘자본의 기여’

- 노조 측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
 - 이는 시간당 산출량(소위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투자증가·기술발전 등의 다른 요인이 없이 오로지 근로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인하는 경우에 타당한 주장
- 하지만 시간당 산출량(평균생산량)으로 계산되는 ‘노동생산성’에는 노동 이외에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음.
 - 이런 이유로 미 노동통계국도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기여(specific

contributions of labor)’와는 다름을 명시하고 있음.

- “Although the labor productivity measure presented in this release relates output to the hours worked of persons employed in manufacturing, it does not measure the specific contributions of labor as a single factor of production. Rather it reflects the joint effects of many influences, including new technology, capital investment, capacity utilization, energy use, and managerial skills as well as the skills and efforts of the workfo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 Trends,” 2005. (2006. 9. 26.)

□ 따라서 적정임금의 산출을 위해서는 ‘노동의 기여’의 산정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개별 생산요소 기여는 자본스톡 자료 및 활용도 제약, 생산함수의 정의 등의 문제로 직접 측정이 어려움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노동과 자본기여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실의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도 가능함.

- 한계생산성 개념을 이용하면 생산요소 간 적정 소득분배율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생산요소 간 소득분배의 적정성을 판단
-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요소 간 소득분배의 적정성을 판단

(1) 한계생산성 개념에 기초한 생산요소 간 적정 소득분배율

□ 한계생산성 개념에 기초한 생산요소 간 적정 소득분배율을 도출해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부록> 참조).

－ 첫째, 노동/자본 소득비율은 노동 1단위가 사용하는 자본량, 즉 노동장비율에 의해 결정됨.

－ 둘째,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은 노동장비율의 증가율에 비례

□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2000~2005년 기간 동안의 노동/자본 소득비율 증가율과 실제 노동/자본 소득비율 증가율을 추정 비교한 결과, 후자가 더 높은 것(대체탄력성이 0에 가까운 경우를 제외)으로 나타남.⁶⁾

－ 2000~2005년간 노동장비율의 변화를 감안한 적정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은 거의 0%인 반면

－ 2000~2005년간 노동/자본 소득비율은 연평균 4.2% 증가

□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00~2005년 중 발생한 소득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노동 쪽으로 배분되었음.

－ 둘째, 이 기간 중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음을 감안할 때, 임금상승률이 ‘노동의 기여’의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제조업 취업자(천 명): 4,293(2000년) → 4,234(2005년)

6) 대체탄력성은 두 재화, 즉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가격변화에 따른 투입자본과 투입노동의 변화량을 가리킴.

- 셋째, ‘자본의 기여’에 미달하는 자본소득 증가가 있었으며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 투자부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 설비투자증가율: 8.7%(1991~2000년) → 2.4%(2001~2006년)

□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정반대의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것이 최근 일본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00~2004년 중 노동장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본 소득비율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의 노동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일본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 노동장비율을 감안한 소득분배와 실제 소득분배 비교

(단위: %)

연평균증가율	노동장비율의 증가율	소득분배율의 증가율					
		적정					실제
		s=0.2	s=0.5	s=0.8	s=1	s=1.25	
한국(2000~2005)	0.0	0.1	0.0	0.0	0.0	-0.0	4.2
일본(2000~2004)	1.5	5.9	1.5	0.4	0.0	-0.3	-2.7

주: s= 대체 탄력성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영분석』,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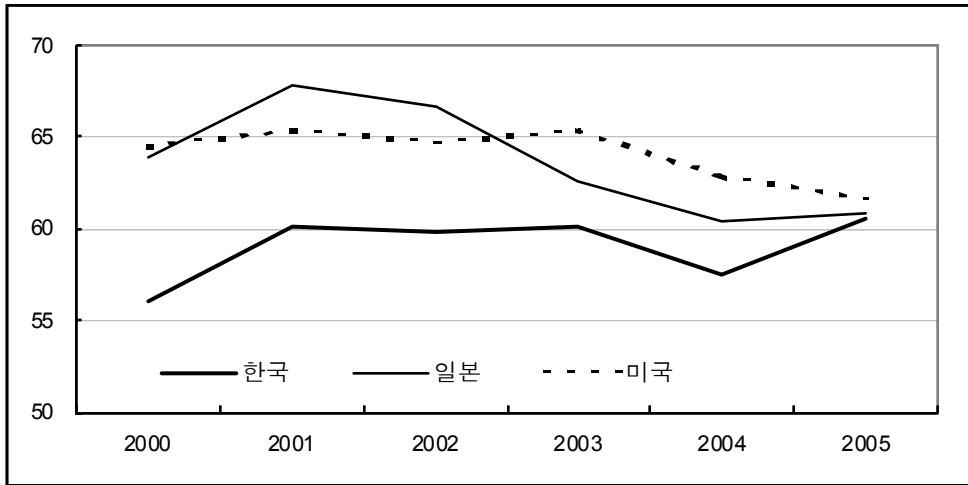
(2) 한국·일본·미국의 제조업 노동소득분배율

□ 한국의 제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⁷⁾은 2000~2005년 중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하락추세를 보임.

7) 노동소득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여기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그리고 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은 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음.

- 2000년 대비 2005년의 노동소득분배율
 - 한국: 56.1%(2000년) → 60.5%(2005년), 4.4%p 상승
 - 미국: 64.4%(2000년) → 61.7%(2005년), 2.7%p 하락
 - 일본: 63.8%(2000년) → 60.9%(2005년), 2.9%p 하락

<그림 1> 한·미·일의 노동소득분배율(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일본 내각부, 미국 상무부 경제조사국

□ 이로 인해 미·일과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격차가 크게 감소

-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음.

- 2003년 현재 한국의 제조업 부문 자영업자 비중은 15%로 일본(7%)의 2배, 미국(2%)의 7배 수준⁸⁾

□ 2000~2005년 중 우리나라의 피용자보수(노동소득) 증가율이 영업잉여(자본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과는 큰 대조를 보임.

8) 자료: OECD Labour Statistics, 2006. 미국은 2002년 기준임.

- 한국: 피용자보수증가율 ≧ 영업잉여증가율
- 미국과 일본: 피용자보수증가율 ≪ 영업잉여증가율
- 특히 일본은 부가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은 오히려 증가

<표 6> 한·미·일의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제조업)

2000~2005년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한 국	6.4	8.0	4.2
일 본	-0.9	-1.8	2.1
미 국	1.2	0.3	2.5

자료: 한국은행, 일본 내각부, 미국 상무부 경제조사국

□ 이는 노동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적정수준 이상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

- 그 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0~2005년간 1.4% 감소한 반면 주당 36시간 미만의 고용은 동 기간 중 5.3% 증가

<표 7>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2005 ¹⁾
취업자(전체, 천 명)	4,293	4,267	4,241	4,205	4,290	4,234	-56
증가율(%)	-	-0.6	-0.6	-0.9	2.0	-1.3	-1.4
취업자(36시간 미만, 천 명)	229	242	259	244.6	236.9	241.2	12.2
증가율(%)	-	5.4	6.6	-5.9	-3.3	1.8	5.3

주: 1) 기간 중 증감, 기간 중 전체 증가율

자료: 통계청

- 전산업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1년 26.8%에서 2006년 35.5%로 증가

<표 8> 전산업 비정규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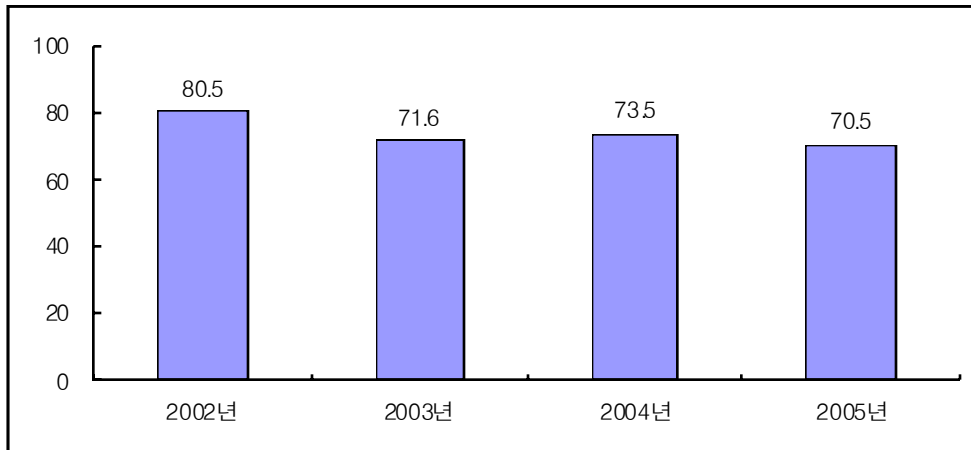
	2001. 8.	2002. 8.	2003. 8.	2004. 8.	2005. 8.	2006. 8.
비정규직(천 명)	3,635	3,839	4,606	5,394	5,483	5,457
임금근로자 중 비중(%)	(26.8)	(27.4)	(32.6)	(37.0)	(36.6)	(3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2006. 8.

- 그리고 저임금인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는 노동비용 하락에 큰 기여
 - 2002년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임.
 - 2002~2005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10%p 감소함.
 - 비정규직 임금수준의 상대적 하락은 정규직 임금증가로 인한 생산비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해 왔음.

<그림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

(단위: 정규직 시간당 임금=100.0)



자료: 강승복(2005)

-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는 임금상승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2005년을 예로 들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가 정규직 임금의 70.5%의 임금을 받음.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을 경우, 전체 임금은 89.2로 계산됨.⁹⁾
- 비정규직 36.6%가 정규직화되어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을 받게 된다면(고용이 줄지 않을 경우), 전체 임금은 92.7이 됨.
- 결국 2005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은 약 4% 추가 상승하게 됨.

3.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이라 인정할 경우, 임금 비교

노조의 주장대로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라고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상승이 지나침.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은 시간당 명목임금을 시간당 산출량을 나눈 것으로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비용을 의미

- 따라서 단위노동비용은 임금과 시간당 산출량의 관계에 의해 결정
 - 임금의 증가는 단위노동비용을 높이고 시간당 산출량의 증가는 단위노동비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
 - 만약 시간당 산출량 증가 한도 내에서 임금이 상승한다면 단위노동비용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야 함.

-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하면 시간당 산출량 증가를 초과한 임금인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경쟁력 하락 요인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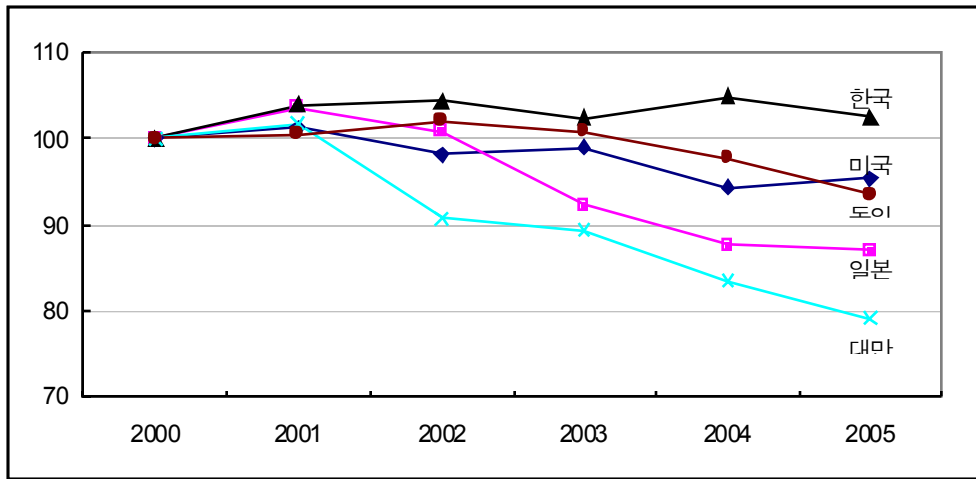
단위노동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

9) 전체 임금 = $100 \times 0.634 + 70.5 \times 0.366$ 으로 계산되며 0.634와 0.366은 각각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냄.

- 미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단위노동비용은 2005년 102.5로 2000년 이후 5년간 시간당 산출량 증가를 초과한 임금상승률이 2.5%p이 있음을 보여 줌.
- 큰 수치는 아니지만 대만(79.1)은 물론 미국(95.4), 일본(86.9), 독일(93.6) 등 주요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며 그 격차만큼의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가 발생

<그림 3>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 비교

(단위: 2000=100)



자료: 미 노동통계국

□ 산업구조 및 산업부문별로 단위노동비용¹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부표 2> 참조).

(1) 노동생산성 증가와 관계없는 임금상승률

-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4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

10) 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는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기준 단위노동비용 지수임.

하는 데도 시간당 임금의 증가율의 차이는 5%p 미만에 그침.

- 중화학공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2005년 중 42.1%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13.0% 증가에 그침.
-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59.5%, 55.0%로 큰 차이가 없음.

– IT부문과 비IT부문¹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5배 이상 격차 존재, 반면 시간당 임금의 증가율은 차이는 20%p 미만에 그침.

- IT부문의 노동생산성은 2000~2005년 중 105.4% 증가한 반면 비IT부문은 18.6% 증가에 그침.
- IT부문과 비IT부문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75.7%, 57.2%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음.

(2) ‘자본의 기여’를 감안하지 않은 임금상승률

– 중화학공업, IT부문은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의 기여’가 크다는 이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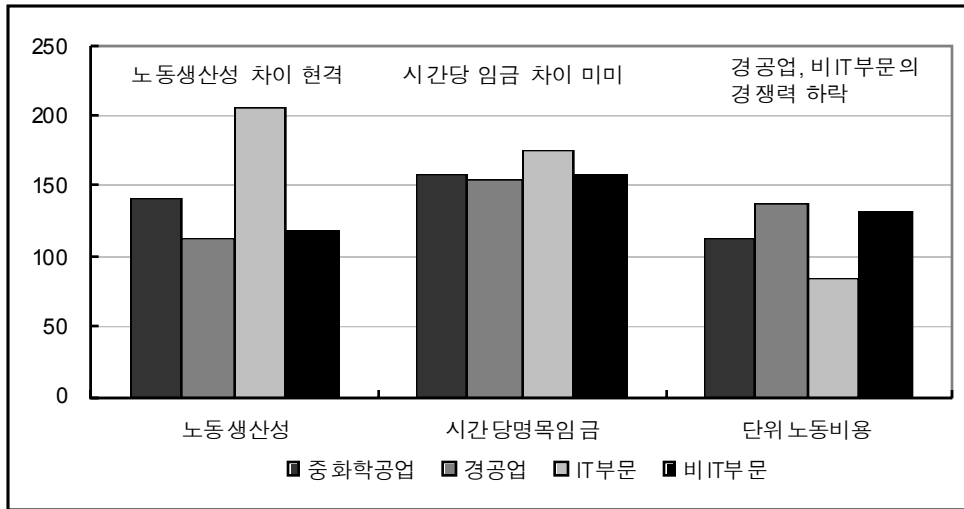
-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특성상 ‘자본의 기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부문의 시간당 산출량 증가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무리

– 따라서 중화학공업, IT부문의 적절한 임금인상률은 ‘시간당 산출량’이 아닌 자본의 기여를 고려한 순수 노동의 기여를 기초로 해야 함.

-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 산업부문의 임금상승률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 경공업 및 비IT부문들에서도 생산성과 무관하게 높은 임금상승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함.

11) IT부문은 제조업 22개 산업 중분류 중 30(컴퓨터·사무용기기)업종과 32(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업종 등 2개 업종을 합한 것이며 비IT부문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의미

<그림 4> 제조업 부문별 노동생산성, 명목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리뷰』

4. 제조업 임금 구성에 대한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임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직접임금의 비중이 하락¹²⁾

- 우리나라 직접임금의 비중은 1985년 90.3%로 비교대상 27개국 중 5위였으나 2005년에는 78.3%로 감소함에 따라 18위로 하락
 - 비교대상국 중 가장 빠른 하락 속도임.

□ 이는 임금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인식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임금(direct pay)이 임금(compensation)에서 차지하는

12) 이는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주거비 및 교육비, 사회보장제도 미흡, 직장 이동의 어려움 등과 함께 근로자들의 체감임금을 낮게 하는 요인

비중은 1985~2005년 중 약 12%p 하락했는데 동 기간 중 임금인상률이 100%일 경우, 근로자들은 직접임금(direct pay)의 인상률이 약 73%에 그친 것으로 체감

- 반면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직접임금 외의 노동비용 부담은 크게 증가

• 1985~2005년 중 사회보험지출 등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동안 9.7%에서 21.7%로 상승(<부표 3> 참조)

<표 9> 제조업 시간당 임금에서 직접임금(Direct Pay)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가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순위
뉴질랜드	94.1	94.1	94.1	94.8	95.2	95.4	95.5	95.5	95.5	1
홍콩	96.3	95.7	95.0	94.8	91.5	91.5	91.5	91.5	91.5	2
덴마크	94.4	97.4	94.4	92.1	91.1	90.3	89.9	89.6	89.7	3
멕시코	89.2	89.1	88.2	88.4	88.5	88.6	88.7	88.9	89.1	4
대만	92.3	92.4	88.7	85.7	85.5	87.0	88.1	87.9	87.9	5
아일랜드	84.4	84.9	85.6	86.4	86.4	87.1	87.3	87.3	87.3	6
싱가포르	73.0	81.0	78.7	86.1	84.7	84.6	84.8	85.9	86.0	7
이스라엘	84.7	84.7	84.7	85.3	84.9	84.4	84.7	85.1	84.3	8
룩셈부르크	84.9	84.6	85.5	84.4	84.2	84.3	84.3	84.3	84.2	9
스위스	83.9	83.9	83.1	83.1	83.1	83.1	83.3	83.5	83.6	10
일본	87.4	86.5	85.3	83.4	83.0	83.0	83.0	83.0	83.0	11
영국	84.9	84.9	85.8	82.0	82.3	82.3	81.5	81.5	81.5	12
캐나다	87.6	86.1	82.8	84.4	83.5	82.2	81.3	80.6	80.6	13
포르투갈	77.8	78.6	79.5	80.3	80.3	80.3	80.3	80.3	80.3	14
노르웨이	80.6	80.9	83.1	84.3	83.2	82.1	81.0	80.0	80.0	15
호주	85.3	84.7	83.0	81.1	80.5	80.8	80.6	79.7	79.7	16
네덜란드	76.6	77.5	75.8	78.5	78.5	78.5	78.5	78.5	78.5	17
한국	90.3	87.7	84.2	72.9	73.8	75.9	78.3	78.3	78.3	18
미국	80.6	79.7	78.9	79.9	79.2	79.0	78.3	78.1	77.5	19
독일	-	-	75.4	76.5	76.8	76.8	77.1	77.2	77.4	20
핀란드	79.8	76.4	75.9	77.6	77.9	77.3	77.3	77.3	77.3	21
스페인	75.4	75.0	74.7	75.1	75.0	74.9	74.9	75.0	74.8	22
오스트리아	73.8	73.7	72.3	72.4	72.8	72.8	72.8	72.9	72.9	23
스웨덴	70.3	70.0	70.9	71.9	72.0	72.1	71.7	71.7	71.9	24
벨기에	76.0	72.3	70.2	68.5	70.0	70.0	70.0	70.0	70.0	25
이탈리아	70.5	67.9	68.4	68.6	69.0	69.1	69.1	69.1	69.1	26
프랑스	70.9	70.2	69.2	69.2	69.3	69.2	68.9	68.8	68.8	27
독일(서독)	77.9	77.0	75.4	76.4	76.4	76.2	76.0	-	-	-

주: 순위는 2005년 기준

자료: 미 노동통계국

IV. 제조업 임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은 싱가포르·대만·홍콩 등에 비해서 약 2~2.5배 높음.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한 상대적 임금수준은 개도국은 물론 미국·영국 등 선진국보다 높음.
- 시간당 산출량으로 계산되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는 자본의 기여가 결여되어 있음. 만약 자본기여를 고려한다면, 2000~2005년 중 노동소득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함.
 - 이는 제조업 임금이 ‘노동의 기여’ 증가를 초과해 인상된 반면 자본소득은 자본기여를 하회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투자욕 상실 및 투자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
-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이라고 보더라도 2001~2005년 중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상회하였음. 이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인 독일·일본·미국 등과는 대조적임.
- 제조업 중 경공업, 비IT부문은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더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중화학공업, IT부문의 경우는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이지만 자본의 기여가 고려할 경우 결코 낮은 임금상승률은 아님.
- 전체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직접임금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사회보험지출 등 간접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상승하는 추세

□ 시사점

- 제조업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으로 귀속된 부분은 적정수준 이상이었으며 이는 '시간당 산출량 증가'를 노동의 기여증가로 해석해 임금인상과 직결하는 것이 잘못임을 말해 줌.
 - 이는 자본의 기여를 간과함으로써 노동의 기여를 실제보다 과대 계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 따라서 노동장비율 증가, 노동/자본소득 비율 등을 감안하여 자본기여를 반영하여야 함.

-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 함. 특히 최근 경쟁력 하락을 감안한다면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이 필요
 -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상태에서 생산성 증가에 비례한 임금상승률은 주요 경쟁국과의 임금격차를 해소시킬 수 없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지출금, 법정복리비 및 노동관련세금 등의 증가속도를 하향 안정시킬 필요
 - 이를 노동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업과 달리 근로자들은 이를 임금으로 체감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수준에 인식격차가 확대
 - 즉 사용자의 노동비용 증가속도와 피용자의 노동소득 증가 사이에 격차가 발생

참고문헌

- 강승복,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노동리뷰』, 통권 제1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12.
- 김대모, 「적정임금 결정방법으로서의 생산성임금제의 논리적 근거-」, 『산업관계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5, pp.1-21.
- 남성일, 「한국제조업의 대체탄력성과 노동수요탄력성: Translog 비용함수에 의한 추정-」, 89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경제학회, 1989.
-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제고를 위한 7대 과제-」, 2006. 9.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단위 노동비용 국제비교(2004년)』, 정책보고서 06-05, 2006. 4.
- _____, 『생산성, 임금, 사회지출 OECD 국가 국제비교(1996~2005)』, 정책보고서 06-06, 2006. 4.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2006.
- 한국경영자총협회, 『96년 임금조정 기본방향』, 1996. 3.
- _____, 「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 -대졸초임을 중심으로-」, 2007. 2.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통권 제80호, 2006. 3.
- Lucas, R.E., Jr., "Labor-capital Substitution in U.S. Manufacturing," in A.C. Harberger and M.J. Bailey (ed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9, pp.223-274.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 Trends, 2005," News 06-1665, Sep. 26 2006.
- _____,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5," News 06-2020, Nov. 30 2006.

<부 록>

노동장비율과 노동소득/자본소득 비율과의 관계

□ 2000~200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피용자보수의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 2000~2005년간 한국의 제조업 피용자보수 규모는 연평균 8.1% 증가
- 동 기간 미국은 약 0.4% 증가, 일본은 약 1.8% 감소

<표 A1> 한국·일본·미국의 제조업 피용자보수

구 분	한 국 (십억 원)	일 본 (십억 엔)	미 국 (십억 달러)
2000	68,137.7	59,317.8	918.9
2001	72,537.8	58,357.7	876.8
2002	77,921.6	56,090.9	874.3
2003	82,197.0	54,243.6	888.6
2004	93,580.2	54,132.0	901.9
2005	100,266.5	54,204.0	932.7
연평균증가율(%)	8.1	-1.8	0.4

자료: 한국은행, 미국 상무부 경제조사국, 일본 내각부

□ 노조 등에서는 피용자보수의 빠른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을 반영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할 경우, 생산 Y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Y = AK^{\alpha}L^{1-\alpha} \tag{1}$$

- 여기서, A 는 총요소생산성, K 는 자본투입량, L 은 노동투입량, a 는 자본탄력성

-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임금은 노동한계생산성에 따라 결정됨.

$$\begin{aligned} \text{노동한계생산성} &= \frac{dY}{dL} = (1-a)\frac{Y}{L} \\ &= \text{임금}(w) \end{aligned} \quad (2)$$

- 식 (2)로부터 노동 1단위당 생산량(Y/L)의 증가율과 임금(즉 노동한계생산성)의 증가율 간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

- 식 (2)의 양변에 로그를 취함.

$$\log(w) = \log(1-a) + \log(Y/L) \quad (2)'$$

- 식 (2)'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각 변수의 증가율을 구함.

$$\frac{\dot{w}}{w} = \frac{\dot{Y}}{Y} - \frac{\dot{L}}{L} \quad (3)$$

- 식 (3)에서 좌변의 임금증가율은 우변의 노동 1단위당 생산량(Y/L)의 증가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노동 1단위당 생산량의 증가를 단순 반영하여 피용자보수의 높은 증가율의 근거로 삼는 것임.

□ 그러나 위의 결과는 제조업 부문의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이 '1'이어야 한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식 (3)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요소소득분배의 현황 설명에 부적절함.

- 대체탄력성이란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생산요소결합비율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임.
- 학계에서는 대체탄력성의 값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없음.¹³⁾
- 그러나 대체탄력성이 1이란 가정은 거시경제 단위, 즉 제조업 단위 이상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 따라서 대체탄력성이 '1'이란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CE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피용자보수의 적정 증가율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CES 생산함수에서 생산량(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Y = A \{ \alpha K^\sigma + (1 - \alpha)L^\sigma \}^{1/\sigma} \quad (4)$$

- 여기서, $\sigma = 1 - 1/s$, $s =$ 대체탄력성이며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식 (1)과 같음.

- 앞서서와 같이 완전경쟁과 이윤극대화를 가정할 경우, 노동가격과 자본가격은 각각 노동한계생산성과 자본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됨.

$$\begin{aligned} \text{노동한계생산성} &= \frac{dY}{dL} = \left[\frac{(1 - \alpha)L^{\sigma-1}}{\alpha K^\sigma + (1 - \alpha)L^\sigma} \right] \frac{Y}{L} \\ &= \text{노동가격} \end{aligned} \quad (5)$$

$$\begin{aligned} \text{자본한계생산성} &= \frac{dY}{dK} = \left[\frac{\alpha K^{\sigma-1}}{\alpha K^\sigma + (1 - \alpha)L^\sigma} \right] \frac{Y}{K} \\ &= \text{자본가격} \end{aligned} \quad (6)$$

13) Lucas(1969)는 time-series를 통해 본 대체탄력성이 0.3~0.5 사이라고 결론지었음. 그 외 남성일(1989), 김대모(2005)를 참조.

- 여기서, 노동가격은 노동임금, 즉 투입노동 1단위당 소득을 의미하며, 자본가격은 투입자본 1단위당 소득을 의미
- CES 생산함수를 가정할 경우, 노동소득의 자본소득에 대한 비율은 투입 노동 1단위가 사용하는 투입자본의 함수로 나타남.

- 식 (5)에 L을 곱하여 총노동소득을 얻음.

$$\begin{aligned} \text{임금} \times L &= \left[\frac{(1-\alpha)L^\sigma}{\alpha K^\sigma + (1-\alpha)L^\sigma} \right] \frac{Y}{L} \times L \\ &= \left[\frac{(1-\alpha)L^\sigma}{\alpha K^\sigma + (1-\alpha)L^\sigma} \right] Y \end{aligned} \quad (7)$$

- 식 (6)에 K를 곱하여 총자본소득을 얻음.

$$\begin{aligned} \text{자본가격} \times K &= \left[\frac{\alpha K^\sigma}{\alpha K^\sigma + (1-\alpha)L^\sigma} \right] \frac{Y}{K} \times K \\ &= \left[\frac{K^\sigma}{\alpha K^\sigma + (1-\alpha)L^\sigma} \right] Y \end{aligned} \quad (8)$$

- 식 (7)을 식 (8)로 나누어 노동/자본 소득비율을 구함.

$$\frac{\text{총노동소득}}{\text{총자본소득}} = \left(\frac{1-\alpha}{\alpha} \right) \left(\frac{K}{L} \right)^{-\sigma} \quad (9)$$

- 일반적으로 대체탄력성(s)은 1보다 작으므로, σ 는 음의 값을 가짐($\sigma = 1 - 1/s$).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경제(K/L이 높음)일수록 노동의 상대적 소득비중이 높음.
- 또한 식 (9)로부터 생산요소 간 소득비중의 증가율과 노동 1단위에 대한 자본소득의 증가율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
 - 식 (9)의 양변에 로그를 취함.

$$\log W = \log\left(\frac{1-\alpha}{\alpha}\right) - \sigma \log\left(\frac{K}{L}\right) \quad (10)$$

여기서, $W = \frac{\text{총노동소득}}{\text{총자본소득}}$

- 식 (10)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여 각 변수의 증가율을 구함.

$$\frac{\dot{W}}{W} = -\sigma \left(\frac{\dot{K}}{L}\right) \quad (11)$$

- 즉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은 노동 1단위가 사용하는 자본스톡의 증가율에 비례하게 됨.

□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적정성 판단: 한국과 일본의 경우

-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이 노동장비율의 증가율에 비례함을 의미하는 식 (11)을 이용

- 또한 식 (11)은 식 (9)와는 달리 자본탄력성(α)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관련 데이터는 아래와 같음.

- 2000년 이후 한국의 노동장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일본의 노동장비율은 2001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04년 현재까지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임.
- 2000~2005년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은 연평균 4.2% 증가한 반면 일본은 2.7% 감소

<표 A2> 한국·일본의 노동장비율과 노동/자본 소득비중

	한 국		일 본	
	노동장비율 (백만 원)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노동장비율 (만 엔)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2000	123	1.301	1015	3.286
2001	126	1.534	1114	4.634
2002	122	1.510	1094	4.114
2003	122	1.531	1071	2.984
2004	124	1.375	1071	2.598
2005	123	1.558	-	-
연평균증가율(%)	0.0	4.2	1.5	-2.7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장비율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실제 노동소득비중 변화가 과도(대체탄력성이 0에 가까운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남.
 - 2000~2005년간 노동장비율의 변화를 감안한 적정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은 거의 0%인 반면
 - 2000~2005년간 노동/자본 소득비율은 연평균 4.2% 증가
- 일본의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추세는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
 - 즉 노동장비율의 증가는 노동/자본 소득비율을 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이 최근 일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장기불황 탈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높음.

<표 A3> 노동장비율을 감안한 소득분배와 실제 소득분배의 추세 비교

(단위: %)

한 국	노동장비율의 증가율	소득분배율의 증가율					실제
		적정					
		s=0.2	s=0.5	s=0.8	s=1	s=1.25	
2001	2.4	9.8	2.4	0.6	0.0	-0.5	17.9
2002	-3.2	-12.7	-3.2	-0.8	0.0	0.6	-1.6
2003	0.0	0.0	0.0	0.0	0.0	0.0	1.4
2004	1.6	6.6	1.6	0.4	0.0	-0.3	-10.2
2005	-0.8	-3.2	-0.8	-0.2	0.0	0.2	13.3
연평균증가율	0.0	0.1	0.0	0.0	0.0	-0.0	4.2

(단위: %)

일 본	노동장비율의 증가율	소득분배율의 증가율					실제
		적정					
		s=0.2	s=0.5	s=0.8	s=1	s=1.25	
2001	9.8	39.0	9.8	2.4	0.0	-2.0	41.0
2002	-1.8	-7.2	-1.8	-0.4	0.0	0.4	-11.2
2003	-2.1	-8.4	-2.1	-0.5	0.0	0.4	-27.5
2004	0.0	0.0	0.0	0.0	0.0	0.0	-12.9
2005	-	-	-	-	-	-	-
연평균증가율	1.5	5.9	1.5	0.4	0.0	-0.3	-2.7

<부표>

<부표 1> 국가별 시간당 임금과 순위(2005년 기준, PPP 적용)

	달러기준	순위		달러기준	순위
네덜란드	28.7	1	이태리	20.4	16
독일	28.7	2	아일랜드	19.7	17
벨기에	28.4	3	일본	19.0	18
룩셈부르크	27.9	4	한국	18.2	19
핀란드	27.1	5	스페인	17.9	20
오스트리아	26.7	6	이스라엘	17.9	21
노르웨이	25.6	7	뉴질랜드	12.7	22
덴마크	25.5	8	체코	10.9	23
미국	23.6	9	헝가리	10.2	24
호주	22.9	10	포르투갈	9.0	25
스웨덴	22.7	11	싱가포르	8.5	26
캐나다	22.7	12	브라질	8.4	27
영국	22.5	13	폴란드	8.1	28
프랑스	21.3	14	멕시코	3.7	29
스위스	21.3	15			

자료: 미 노동통계국, World Development Indicator online

<부표 2>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관련지표

(단위: 지수(2000=100),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005p	2006p			
		연간	1/4	2/4	3/4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115.4 (1.0)	111.4 (-7.1)	102.9 (-5.9)	112.5 (-6.6)	
	시간당 명목임금	160.1 (9.3)	165.5 (3.0)	156.7 (7.0)	173.6 (4.8)	
	노동생산성	138.7 (8.2)	148.5 (10.9)	152.4 (13.8)	154.4 (12.2)	
산업구조	중화학공업	단위노동비용	112.2 (0.3)	106.5 (-8.3)	98.1 (-7.7)	108.7 (-7.4)
		시간당 명목임금	159.5 (8.4)	162.6 (1.9)	153.3 (5.7)	171.8 (4.2)
		노동생산성	142.1 (8.0)	152.6 (11.1)	156.2 (14.5)	158.0 (12.5)
	경공업	단위노동비용	137.1 (6.5)	142.4 (-1.4)	132.4 (3.0)	138.1 (-1.9)
		시간당 명목임금	155.0 (10.8)	164.7 (4.4)	157.7 (9.2)	168.8 (4.8)
		노동생산성	113.0 (4.0)	115.7 (5.9)	119.1 (6.1)	122.2 (6.8)
IT부문	IT부문	단위노동비용	85.6 (-6.7)	75.1 (-21.7)	71.1 (-12.0)	75.8 (-7.7)
		시간당 명목임금	175.7 (9.6)	170.6 (-7.9)	162.7 (7.7)	181.7 (7.0)
		노동생산성	205.4 (17.5)	227.2 (17.7)	228.8 (22.4)	239.7 (15.9)
	비IT부문	단위노동비용	132.5 (5.1)	133.9 (-0.2)	122.6 (-0.5)	136.6 (-3.5)
		시간당 명목임금	157.2 (9.0)	164.3 (5.2)	155.4 (6.7)	171.9 (4.3)
		노동생산성	118.6 (3.7)	122.7 (5.4)	126.7 (7.3)	125.8 (8.0)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리뷰』

<부표 3> 제조업 시간당 임금에서 사회보험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 가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순위
프랑스	29.1	29.8	30.8	30.8	30.7	30.8	31.1	31.2	31.2	1
이탈리아	29.5	32.1	31.6	31.4	31.0	30.9	30.9	30.9	30.9	2
벨기에	24.0	27.7	29.8	31.5	30.0	30.0	30.0	30.0	30.0	3
스웨덴	29.7	30.0	29.1	28.1	28.0	27.9	28.3	28.3	28.1	4
오스트리아	26.2	26.3	27.7	27.6	27.2	27.2	27.2	27.1	27.1	5
스페인	24.6	25.0	25.3	24.9	25.0	25.1	25.1	25.0	25.2	6
핀란드	20.2	23.6	24.1	22.4	22.1	22.7	22.7	22.7	22.7	7
독일	-	-	24.6	23.5	23.2	23.2	22.9	22.8	22.6	8
미국	19.4	20.3	21.1	20.1	20.8	21.0	21.7	21.9	22.5	9
한국	9.7	12.3	15.8	27.1	26.2	24.1	21.7	21.7	21.7	10
네덜란드	23.4	22.5	24.2	21.5	21.5	21.5	21.5	21.5	21.5	11
호주	14.7	15.3	17.0	18.9	19.5	19.2	19.4	20.3	20.3	12
노르웨이	19.4	19.1	16.9	15.7	16.8	17.9	19.0	20.0	20.0	13
포르투갈	22.2	21.4	20.5	19.7	19.7	19.7	19.7	19.7	19.7	14
캐나다	12.4	13.9	17.2	15.6	16.5	17.8	18.7	19.4	19.4	15
영국	15.1	15.1	14.2	18.0	17.7	17.7	18.5	18.5	18.5	16
일본	12.6	13.5	14.7	16.6	17.0	17.0	17.0	17.0	17.0	17
스위스	16.1	16.1	17.2	16.9	16.9	16.9	16.7	16.5	16.4	18
룩셈부르크	15.1	15.4	14.5	15.6	15.8	15.7	15.7	15.7	15.8	19
이스라엘	15.3	15.3	15.3	14.7	15.1	15.6	15.3	14.9	15.7	20
싱가포르	27.0	19.0	21.3	13.9	15.3	15.4	15.2	14.1	14.0	21
아일랜드	15.6	15.1	14.4	13.6	13.6	12.9	12.7	12.7	12.7	22
대만	7.7	7.6	11.3	14.4	14.5	13.0	12.0	12.1	12.1	23
멕시코	10.8	10.9	11.8	11.6	11.5	11.4	11.3	11.1	10.9	24
덴마크	5.6	2.6	5.6	7.9	8.9	9.7	10.1	10.4	10.3	25
홍콩	3.7	4.3	5.0	5.2	8.5	8.5	8.5	8.5	8.5	26
뉴질랜드	5.9	5.9	6.0	5.2	4.8	4.6	4.5	4.5	4.5	27
독일(서독)	22.1	23.0	24.6	23.6	23.6	23.8	24.0	-	-	-

주: 순위는 2005년 기준

자료: 미 노동통계국